

傳習錄辯*

(傳習錄은 王陽¹⁾의 문인들이 그 스승의 말을 기록한 것인데, 이제 몇 가지 조항을 들어 변론해서 그 나머지를 다하는 바이다)

徐愛가 물었다.

“대학의 도가 親民에 있다는 것을 선생은 마땅히 舊本²⁾을 따라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째서입니까?”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학의 傳文 가운데에 ‘作新民’이라는 新은 스스로 새로워지는 백성이니, ‘新民에 있다.’는 新자와는 같지 않다. 아래의 治國, 平天下의 내용에도 모두 新자에 대해서는 발명함이 없으며, 예를 들면 ‘君子는 그 어진 덕을 어질게 여기고 그 친한 이를 친히 하며, 小人은 그 즐겁게 해줌을 즐거워하고 그 이롭게 해줌을 이롭게 한다.’는 말과 ‘赤子を 보호하듯이 한다.’는 말과 ‘백성의 부모’라는 따위는 모두 親자의 뜻이다. 親民은 맹자의 ‘친한 이를 친하게 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 친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친하지 않으므로 舜임금은 설(契)을 司徒로 임명하여 五教를 펴서 친하게 하였으며, 堯典에는 ‘九族을 친히 하여 平章하고 和協함에 이르렀다.’ 하였으

* 퇴계학 연구원, 「退溪學 譯註叢書」 제10권(19)에서 발췌·수록한 것임

- 1) 王陽明 : 양명은 명나라의 학자인 王守仁의 호이다. 자는 伯安이고 시호는 文成이며, 고요히 앉아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주장하여 姚江學派를 이루었다.
- 2) 舊本 : 古本大學을 이른다. 대학은 원래 禮記의 한 篇이었는데, 여기에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이라고 첫머리에 보이는 바, 程伊川은 “親은 新이 되어야 한다.” 하였으며, 朱熹 역시 大學章句를 지으면서 정이천의 견해를 따라 ‘新’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章節에 있어서도 古本은 잘못된 부분과 빠진 내용이 있다 하여 순서를 바꿔 놓았는데, 왕수인은 程朱의 학설을 배척하고 古本大學을 그대로 따랐다.

니, 이것이 바로 친민이다. 그리고 공자는 ‘백성을 편안히 하라.’고 말씀 하셨으니, 백성을 편안히 한다는 것은 바로 친민이다. 친민이라고 말하면 곧 가르치고 기르는 뜻을 겸하고, 신민이라고 말하면 곧 가르치는 한 쪽만을 느끼게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辨駁한다

“이 章의 머리에 이르기를 ‘대학의 도는 明德을 밝힘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학문을 말미암아 그 덕을 밝힘을 말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르기를 ‘신민에 있다.’는 것은, 자기의 배움을 미루어서 백성에게 미쳐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그 덕을 새롭게 함을 말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學자의 뜻을 띠고 있어 일관된 말이니, 백성을 기르고 백성을 친히 한다는 뜻과는 애당초 상관이 없다. 그런데 陽明은 마침내 감히 방자하게 先儒의 定論을 배척하고, 여러 학설의 방불한 것들을 망령되이 인용하여 건강부회하고 조금도 기탄함이 없으니, 학문의 오류와 마음의 병통을 볼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연구해 보면, 그의 갖가지 거칠고 잘못된 것들이 모두 이 병통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략 몇 가지 조항을 뒤에 열거하는 바이다.”

徐愛가 물었다.

“至善을 다만 마음에서만 구한다면 천하의 事理에 대하여 다하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선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마음은 바로 理이니, 천하에 또다시 마음 밖의 일이 있으며 마음 밖의 理가 있을 수 있겠는가.”

서애가 말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를 섬기는 孝와 군주를 섬기는 忠은 그 사이에 허다한 도리가 있으니, 이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이에 선생은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말의 병폐가 오래 되었다. 우선 예를 들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부모에게 가서 효도하는 도리를 찾는 것이 아니요, 군주를 섬긴다는 것은 군주에게 가서 충성하는 도리를 찾는 것이 아니며, 모두 이 마음 속에 있을 뿐이니, 마음은 바로 理이다. 이 마음이 私慾의 가리움만 없으면 곧 天理이니, 굳이 外面에서 일꾼이라도 첨가할 필요가 없다. 이 순수한 천리의 마음을 가지고 發하여 부모를 섬기면 곧 孝가 되고, 발하여 군주를 섬기면 곧 忠이 되는 것이니, 다만 이 마음이 인욕을 버리고 천리를 보존하는 일을 힘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서애가 말하였다.

“예를 들면 부모를 섬길 때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날이 저물면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새벽에 문안하는 따위에는 허다한 節目이 있으니, 또한 모름지기 이것을 講究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찌 강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만 여기에는 큰 頭腦가 있으니, 다만 이 마음을 가지고 人慾을 버리고 天理를 보존하는 일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겨울에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을 강구한다면 다만 이 마음의 孝를 다하려 하고, 一毫라도 인욕이 끼고 섞임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름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도 또한 그러하다. 그리하여 다만 이 마음을 강구하여 얻어야 하니, 이 마음에 만일 인욕이 없고 순수한 천리 뿐이라면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이 정성스러워서 겨울철에는 자연히 부모가 추워하실 것을 생각하여 저절로 가서 따뜻하게 해드릴 도리를 구하게 되며, 여름철에는 자연히 시원하게 해드릴 도리를 생각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진실로 효도를 하려는 이 마음이 뿌리요, 허다한 조항은 곧 지엽인 것이다. 모름지기 먼저 뿌리가 있는 뒤에 지엽이 있는 것이니, 먼저 지엽을 찾은 뒤에 뿌리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변박한다.

“이는 본래 窮理工夫를 논한 것인데, 뒤바꾸어 실천의 功效上에 입각하여 뒤섞어 말하였다.”

鄭朝朔이 물었다.

“至善은 또한 모름지기 事物上에서 옳고 마땅함을 찾아야만 바야흐로 지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겨울철에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철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절차와 받들어 봉양함의 마땅함은 하루이틀 동안만 강구하면 다할 수 있으니, 學問思辨³⁾의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오직 겨울철에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철에 시원하게 해드릴 때에 다만 이 마음이 천리에 순수하기를 지극히 하도록 하며, 봉양할 때에 다만 이 마음이 천리에 순수하기를 지극히 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학문사변의 공부가 있지 아니하면 장차 털끝만한 차이가千里나 되는 큰 오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하찮은 儀節에 이 마땅함을 구하는 것을 곧 至善이라고 한다면, 지금에 扮粧하는 배우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드리며 봉양하는 등의 허다한 의절을 마땅하게 분장하면, 이 또한 至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변박한다.

“마음에 근본하지 않고, 다만 겉으로 儀節을 講究하는 것은 진실로 분장하는 배우와 다를 것이 없거니와, 다만 백성의 떳떳한 마음과 사물의 법칙은 모두 하늘이 내린 衷⁴⁾으로서 참되고 지극한 이치란 말을 듣지

3) 學問思辨 :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변하는 것으로, 학문의 모든 일을 가리키는 바, 中庸의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를 요약한 것이다.

4) 하늘이 내린 衷 : 충은 中자와 같은 뜻으로 脛을 가리키며 이것을 사람이 받으면 性이 된다고 한다. 書經 湯誥에 “위대하신 상제가 사람들에게 충을 내려 주시니, 이것을 순히 받아 떳떳한 性을 간직하게 되었다.[惟皇上帝 降衷于下民

못했는가. 또한 朱子께서 말씀한 ‘敬을 주장하여 그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궁구하여 그 지식을 지극히 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마음이 경을 주장하여 사물의 참되고 지극한 이치를 연구하며, 마음이 義理를 깨달아 莊子에 나오는 庖丁의 눈에 온전한 소[牛]가 없듯이⁵⁾하여 內와 外가 서로 통하고, 精한 것과 거친 것이 일치되면, 이로 말미암아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루고 몸을 닦으며, 이것을 집안과 나라에 미루어 가고 천하에 도달함에 막힘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또한 분장을 잘하는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陽明은 다만 외물이 마음에 뉘가 됨을 염려하여, 사람의 떳떳한 마음과 사물의 법칙이 진실되고 지극한 이치가 바로 내 마음에 갖추어진 이치이며, 講學하고 窮理하는 것은 바로 본심의 體를 밝히고 본심의 用을 통달하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事事, 物物을 일체 끌어 버리고자 하여 모두 본심으로 끌고 들어가서 뒤섞어 말하였다. 이는 釋氏의 견해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런데도 그는 때로 석씨를 공격하는 말을 하여 자기의 학문이 석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니, 이 또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 그 門徒 중에 처음 밝았던 자들도 그의 부정한 학설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감을 깨닫지 못하고는 마침내 ‘말한 아래에 생략된 글이 있다.’ 하였으니, 또한 가련하구나.” (서애의 字는 曰仁으로 양명의 문인이다. 이 말을 기록하는 자가 이 조항의 끝에 “이날 서애의 말한 아래에 생략된 글이 있다.” 하였다.)

서애가 知行合一說을 물으며 말하였다.

若有恒性]”하였다.

- 5) 온전한 소[牛]가 없듯이 : 학문이나 技藝가 매우 익숙해짐을 이른다. 莊子 養生主에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큰 소였는데, 3년을 계속 잡은 뒤에는 솜씨가 익숙해져서 눈에 일찍이 완전한 소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 하였다.

“사람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해야 함을 알고 형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함을 아는 자가 있으되, 도리어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知와 行이 분명 두 가지인 것입니다.”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는 이미 사사로운 뜻에 막히고 단절되었기 때문이고, 지·행의 本體는 아니다. 성현이 사람들에게 지·행을 가르친 것은 바로 이 본체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다. 大學에 아름다운 여색을 좋아하듯이 하라고 말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변박한다.

“양명은 이르기를 ‘지금 사람들이 우선 講習하고 討論하여 참을 알기를 기다려 바야흐로 行工夫를 하려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종신토록 행하지 않으며, 또한 종신토록 알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 말은 末學들이 다만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데 일삼는 병폐를 매우 절실히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병폐를 바로잡고자 하여 억지로 穿鑿해서 知行合一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었는 바, 이 조항은 그가 비록 지극히 변론하고 자세히 말하였으나 말이 더욱 공교로울수록 뜻이 더욱 멀어졌으니, 그 이유는 어째서인가? 그는 好色을 보는 것과 악취를 맡는 것을 知에 소속시켰고, 호색을 좋아함과 악취를 싫어함을 行에 소속시켰다. 그리하여 ‘호색을 보고 악취를 맡을 때에 이미 스스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요, 이 호색을 본 뒤에 또다시 마음을 세워 가지고 가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며, 악취를 맡은 뒤에 이 마음을 세워 가지고 가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을 지행합일의 증거로 삼고 있는데, 매우 그럴 듯하다.

그러나 양명은 사람들이 선을 보고 좋아하기를 과연 好色을 보면 저절로 좋아하는 실제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不善을 보고 미워하기를 과연 악취를 맡으면 저절로 싫어하는 실제와 같이 한다고 여기는가? 공자는 말씀하기를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女色을 좋아

하듯이 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하셨고, 또 말씀하기를 ‘나는 不仁을 미워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하셨다.

사람의 마음 중에 形氣에서 나온 것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고 힘 쓰지 않아도 저절로 능하여,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表裏가 如一해진다. 그러므로 잠깐 호색을 보면 곧 아름다움을 알아 마음에 진실로 좋아하며, 잠깐 악취를 맡으면 곧 그 악함을 알아 마음에 실제로 싫어하니, 이는 비록 行이 知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의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힘 쓰지 않으면 능하지 못하며, 밖에 행하는 것이 반드시 내면에 성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선을 보고도 선인 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선임을 알고도 마음에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선을 본 때에 이미 스스로 선을 좋아한다고 이르는 것이 되겠는가? 불선을 보고도 미워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며, 악임을 알고도 미워하지 않는 자가 있으니, 악을 알았을 때에 이미 미워한다고 말하는 것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대학에는 저 표리가 똑같은 好惡를 빌려서 배우는 자들이 스스로 마음을 속이지 말 것을 권면하였으니, 이것은 可하거니와 양명은 마침내 저 形氣의 하는 바를 인용하여 이 의리에 대한 지·행의 말을 밝히고자 하였으니, 이는 크게 불가하다. 그러므로 의리의 지·행을 합하여 말하면 진실로 서로 필요하고 아울러 행해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을 나누어 말한다면 지를 행이라 이를 수 없으니, 이는 행을 지라고 이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찌 지와 행을 합하여 하나라고 한단 말인가? 또 성현의 학문은 마음에 근본하여 사물을 꿰뚫고 있다. 그러므로 선을 좋아하면 마음에 선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행하는 일에 선을 이루어 마치 호색을 좋아하듯이 해서 반드시 얻기를 구하는 것이요, 악을 미워하면 단지 마음으로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행하는 일에 악을 제거하여 악취를 미워하듯이 해서 끝내 버리기를 힘쓰는 것이다.

양명의 소견은 오로지 본심에 있어 털끝만치라도 밖으로 사물에 관여

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다만 본심에 나아가 지·행을 하나라도 인식한 나머지 이것을 뒤섞어 합하여 말하였으니, 만일 그의 말과 같이 오로지 본심에만 일삼고 사물을 간섭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진실로 호색을 좋아할진대, 비록 장가를 들지 아니하여 부부간의 윤리를 폐하더라도 또한 호색을 좋아하고 있다고 이를 수 있단 말인가. 마음에 진실로 악취를 싫어할진대, 비록 불결한 것을 몸에 뒤집어쓰고 있더라도 또한 악취를 싫어하고 있다고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양명도 또한 자기 학설의 편벽됨을 알았다. 그러므로 지·행을 나누지 않으면 지·행의 본체가 되고, 지·행을 나누면 사사로운 뜻에 막히고 차단된 것이 된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옛 성현들이 지·행의 말씀한 것이 모두 사사로운 뜻이란 말인가?

‘아픔을 알면 이미 스스로 아파할 줄을 알고, 추움을 알면 이미 스스로 추워하며, 굶주림을 알면 이미 스스로 굶주려 한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그 말을 공교롭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疾痛과 飢餓는 몸과 마음이 만나는 일로써 환경에 따라 얻은 이름일 뿐이요, 의리의 지·행을 말한 것은 아니다. 질통을 알고서 그 도리에 맞게 대처하여야 바야흐로 질통의 지·행이라 이를 수 있으며, 饑寒을 알고서 그 도리에 맞게 대처하여야 바야흐로 기한의 지·행이라 이를 수 있는 것이니, 만일 단지 아파할 줄을 아는 것을 행이라고 이룬다면 행하는 것은 혈기 뿐이요, 의리가 아니며, 만일 단지 배고파 하고 추위함을 행이라고 이룬다면 행하는 것은 인심 뿐이요 도심이 아닌 것이다. 또 아픔에 아파할 줄을 알며 굶주리고 추움에 굶주리고 추워할 줄을 아는 것은 길가는 사람과 걸인 또는 금수도 모두 능하니, 이와 같은 것을 지와 행이라고 이룬다면 학문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아픔과 가려움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을 아는 것을 性이라 한 것은, 이는 본래 告子の 生之爲性⁶⁾이란 말에서 나온 것인데, 양명의 소견은

6) 告子の 生之爲性 : 이 내용은 맹자 告子上에 보이는 바, 맹자는 性을 理로 보아 性善說을 주장한 반면, 고자는 사람의 지각운동, 즉 生의 본능을 性이라고

여기에 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내어 그 주장을 꾸며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단지 形氣의 욕망에만 시행될 수 있고, 의리의 지·행에 비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와 제에 대하여는 ‘이미 효도할 줄을 알면 이미 스스로 효도하고 있고, 공경할 줄을 알면 이미 스스로 공경한다.’고 말하지 않고, 단지 말하기를 ‘사람 중에 효도를 칭찬하고 공경을 칭찬하는 자는 반드시 이미 효도를 행하고 공경을 행한다.’ 하였으니, 이는 앞뒤의 말한 뜻과 서로 합치지 못한다. 그리고 끝내는 ‘옛사람들이 이 때문에 이미 지를 말하고 또 행을 말했다.’고 한 부분에서는 다만 전과 같이 지와 행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함을 면치 못했으니, 이는 도리가 본래 이와 같아서 끝내 뒤섞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았다.